05 2017학년도 모의논술 출제 의도 및 해설

2017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대비 모의시험

출제 의도

2017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모의논술고사에서는 본교 논술 출제 원칙을 충실히 지키고자 하였다.

첫째, 본 모의논술에서는 국제, 사회, 경제, 심리, 문화적 요소들을 활용한 통합교과형 문제를 제시하여 한국외대를 지망하는 수험생들이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과 사회과학적 사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둘째, 고등학교 교과서에 소개된 동서양의 고전, 시문학, 그래프 등 장르나 성격이 다른 소재들 간의 내용적 연관성을 포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고 고전에 담겨진 지혜를 활용하여 다가올 미래 사회를 올바로 이해할 뿐 아니라 비판적으로 통찰하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였다.

셋째, 선행학습을 지양하고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다. 대부분의 제시문을 고등학교 교과서와 EBS 수능 교재에서 출제함으로써 고교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모의논술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Part I은 현대 사회의 화두인 사물인터넷에 대한 영어 제시문과 패놉티콘으로 대변되는 근대 사회의 통제와 감시의 규율 권력에 대한 제시문, 안개에 싸여 통제되고 마비된 상황에 대한 순응적 태도를 비판하는 시로 구성했다. [문제 1]은 두 제시문의 요지와 문학작품의 주제의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 [문제 2]는 〈제시문 2〉와 〈제시문 3〉의 관점에서 〈제시문 1〉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읽어내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Part I에서는 푸코의 패놉티콘과 문학 텍스트에 대한 해석의 결과를 사물과 사물, 사물과 인간을 연결시킴으로써 무한한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사물인터넷 세상에 투사하여 이를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Part II에서는 박지원의 수필과 심리학에 기반한 기대이론을 소개하는 제시문 및 실제 자료를 제시하여, 언어학, 철학 영역에 다소 집중했던 출제 경향을 벗어나 사회과학적 학문까지도 아우르는 통합형 문제를 출제하고자 하였다. [문제 3]은 지각의 상대성을 보여주는 두 제시문을 이해하고 각각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를 비교·분석하여 서술하는 능력, [문제 4]는 이익과 소실에 대한 이해가 객관적인 기댓값보다 주관적인

가치의 크기에 의존한다는 카네만과 트버스키의 기대이론을 구체적인 실례에 적용하게 함으로써 그래프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과 이를 실제 사례에 적용 추론하는 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자료출전

모의논술에 활용된 Part I의 영어제시문은 미국의 유명 비즈니스 잡지에서, 한국어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발췌하였으며, Part II의 제시문과 자료는 EBS 수능 교재를 활용하였다. 모의논술고사에 활용된 제시문과 자료의 출전은 아래와 같다.

〈**제시문 1**〉 출처 : J. Morgan, "A Simple Explanation of 'The Internet of Things'", *Forbes*

〈**제시문 2**〉 출처 :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2015)

〈**제시문 3**〉 출처 : 김광규, 「안개의 나라」, 『EBS 수능특강 문학』 (2016)

〈**제시문 4**〉 출처 : 박지원, 「일야구도하기(一夜九渡河記)」, 고등학교 『고전』 (2015)

〈**제시문 5**〉 출처 : 『EBS 인터넷 수능 국어 영역 화법과 작문 & 독서와 문법 (A형, B형)』 (2014년)

〈**자료**〉 출처 : 『EBS 인터넷 수능 국어 영역 화법과 작문 & 독서와 문법 (B형)』 (2014년).

각 제시문과 자료 요지

〈**제시문 1**〉 사물인터넷 세상이 인간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해 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한다.

〈**제시문 2**〉 패놉티콘을 예로 들어 근대 규율 권력의 특징을 권력자가 만인을 미세한 영역까지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선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3**〉 시인은 안개에 싸여 통제되고 마비된 상황에 순응하기보다 새롭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제시문 4**〉 〈제시문 4〉는 동일한 지각 경험이 배경에 따라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한다. 즉 작중 화자는 낮에는 거친 파도 때문에 강물소리가 안 들리고 밤에는 거친 파도가 보이지 않아 강물소리가 요란하게 들려 걱정한다. 그는 이와 같은 상대적 지각 경험을 통해 결국 생활에서의 평정심은 마음먹기에 달렸음을 깨달으며 감각에 의존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마음 비우기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제시문 5**〉 (가) 따뜻한 물 또는 차가운 물에 담근 경험적 배경에 따라 미지근한 물에 손을 넣었을 때 온도를 다르게 느낀다고 한다. 따라서 사물에 대한 지각은 절대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카네만과 트버스키의 가치 함수 그래프를 통해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이득이나 손실의 객관적인 기댓값보다 만족감이나 상실감과 같은 주관적인 가치의 크기에 따라 결정한다는 기대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자료**〉 (가)는 이익이 나는 두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한 예이다. 기댓값이라는 객관적 조건에는 차이가 없지만 손익과 가치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치 함수 그래프에 이를 적용할 경우 주관적 가치의 크기에 따라 무조건 10,000원을 받는 쪽을 선택하게 된다.

(나)는 손해가 나는 두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한 예이다. 기댓값이라는 객관적 조건에는 차이가 없지만 기대이론의 가치 함수 그래프에 이를 적용할 경우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선택하게 된다.

내용적 측면

①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통합논술의 목표인 1. 통합적 통찰 능력 및 인식 능력의 함양, 2. 통합적 비판 능력과 판단 능력 고양, 3. 전문인으로서 적합한 통합적 탐구 능력과 통합적 적성 개발, 4. 올바른 가치관 정립, 5. 정보화 시대의 통합적 정보 취득 역량 함양, 6. 논리적이면서도 창의적인 표현 능력 개발의 취지를 고려하여 제시문과 자료를 선정하였다.

②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③ 선행학습 방지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고등학교 교과서와 EBS 수능교재를 적극 활용하였다.

④ 감시와 통제의 규율 권력이라는 철학적 주제와 문학 작품의 주제의식을 사회적 현안과 연결, 적용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시문들을 활용하였다.

⑤ 사회 현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해 보려는 사회과학적 마인드와 비판적 안목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와 문제를 제시하였다.

형식적 측면

① Part I은 영어 제시문 한 개와 우리말 제시문 두 개로 구성하고, Part II는 제시문 두 개와 자료 한 개로 구성하였다.

② [문제 1]은 요지 및 주제의식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③ [문제 2]는 비판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제시문 2〉와 〈제시문 3〉의 관점에서 〈제시문 1〉의 내용을 비판하도록 하였다.

④ [문제 3]은 동일한 화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지닌 〈제시문 4〉와 〈제시문 5〉를 읽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⑤ [문제 4]는 〈제시문 5〉의 그래프를 해석하여 이를 〈자료〉의 사례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06 2017학년도 모의논술 출제 및 채점 기준

2017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대비 모의시험

Part I

〈**제시문 1**〉 출처 : J. Morgan, "A Simple Explanation of 'The Internet of Things'", *Forbes*

〈**제시문 2**〉 출처 : 비상교육,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2015)

〈**제시문 3**〉 출처 : 김광규, 「안개의 나라」

영어 〈제시문 1〉의 우리말 번역

사물인터넷은 직장 안과 밖에서 점점 화두가 되어가고 있다. 간단하게 말해서 사물인터넷이란 켰다 껐다 하는 스위치가 달린 모든 기기를 인터넷과 연결시킨다는 개념이다. 이는 휴대폰, 커피메이커, 세탁기, 헤드폰, 램프, 몸에 장착 가능한 기기(wearable devices) 등을 포함한다. 리서치기관인 가트너(Gartner)에 의하면 2020년에는 260억 개 이상의 기기들이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수치를 훨씬 더 많은 1,000억 개로 예상하기도 한다. 사물인터넷은 사물들의 거대한 네트워크이며 이는 사람도 포함한다. 이 때의 관계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관계를 말한다.

미래에는 "연결가능한 모든 것이 연결될 것이다"라는 말이 새로운 규칙이 된다. 왜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말하는 이 많은 기기들을 원하는 것일까? 이러한 세상의 모습은 어떠하며 어떤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지 보여주는 많은 예들이 있다. 가령 당신이 회의에 가는 길이라고 하자. 자동차가 당신의 스케줄을 보고 어떤 길로 가야하는지 미리 알 수도 있다. 교통체증이 있다면 자동차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늦을지도 모른다고 알려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 보다 광범위하게는 교통 네트워크에 사물인터넷이 도입되어 "똑똑한 도시"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이러한 도시는 쓰레기를 줄이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돕는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생활하는가를 이해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사물인터넷은 오늘날의 우리들은 생각할 수도 없고 그 영향력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도 없을 정도로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고 모든 것을 연결시킬 것이다.

문제 1 〈제시문 1〉, 〈제시문 2〉의 요지와 〈제시문 3〉의 주제의식을 서술하시오. (200자 내외, 100점)

〈제시문 1〉, 〈제시문 2〉, 〈제시문 3〉의 요지

〈제시문 1〉 사물인터넷 세상이 인간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해 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한다.

〈제시문 2〉 패놉티콘을 예로 들어 근대 규율 권력의 특징을 권력자가 만인을 미세한 영역까지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선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3〉 안개에 싸여 통제되고 마비된 상황에 순응하기보다는 새롭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평가지침

본 문제는 각 제시문의 요지와 주제의식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기술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 200자 내외로 짧게 서술해야 하므로 핵심어(사물 인터넷, 정보, 규율 권력, 감시와 통제, 무기력, 순응 등)를 찾아 이를 간명하고 매끄럽게 서술했는지 평가한다. 〈제시문 1〉에서는 사물인터넷 세상이 인간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해 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 잘 요약하고 있는가, 〈제시문 2〉에서는 패놉티콘을 예를 들어 근대 규율 권력의 특징을 권력자가 만인을 미세한 영역까지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선으로 설명하고 있는가가 관건이다. 〈제시문 3〉에서는 안개에 싸여 통제되고 마비된 상황에 순응하기보다는 새롭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주제의식에 대해 잘 기술해야 한다.

☞ 채점기준 : A0 또는 B0를 기준으로 하며, +, −를 가감함.

등급		기준
A	A+ A0 A-	사물인터넷, 정보, 규율 권력, 감시와 통제, 무기력, 순응 등 핵심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여, 각 제시문의 요지와 주제 의식을 명확하게 서술한 경우
B	B+ B0 B-	핵심어의 대부분을 사용하여 각 제시문의 요지와 주제의식을 기술하였으나 일부 명확하지 않은 경우
C		요구되는 핵심어를 대부분을 서술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각 제시문의 요지와 주제 의식을 적절히 서술하지 못한 경우
D		서술된 핵심어가 전혀 방향이 맞지 않고, 이에 따라 각 제시문의 요지와 주제 의식이 잘못 서술된 경우
F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기술한 경우
0점		부정행위자 및 백지답안

문제 2 〈제시문 2〉와 〈제시문 3〉을 각각 활용하여 〈제시문 1〉의 견해를 비판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제시문 1〉의 사물인터넷 세상에 대한 긍정적 전망은 〈제시문 2〉에서 말한 패놉티콘으로 대변되는 감시와 통제라는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 푸코는 타인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타인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관찰하는 것이 권력의 본질이라고 보았다. 사물인터넷 사회도 기술이 광범위하고 일상적으로, 그러면서도 보이지 않게 인간의 행동과 움직임을 추적, 기록, 감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패놉티콘을 떠올리게 한다. 사물인터넷 사회에서도 수집된 거대한 정보를 가진 자가 권력을 소유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사물인터넷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제시문 3〉의 안개의 나라에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음에 무기력함을 느끼나 이에 점차 익숙해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사물인터넷 세상의 편리함에 익숙해져서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주체성을 상실할 수 있다. 따라서 안개의 나라 사람들이 안개로 인해 보지 못할 때 대신 '들어야' 하는 것처럼 사물인터넷 세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인간의 주체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평가지침

이 문제는 〈제시문 2〉와 〈제시문 3〉의 문제의식을 정확히 파악하여 〈제시문 1〉의 세계를 비판하고, 그 이유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개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

답안을 적절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시문 2〉와 〈제시문 3〉에 나타난 세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잘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제시문 2〉의 패놉티콘은 감시와 통제의 사회를 상징하며, 〈제시문 3〉의 안개의 나라는 사람들의 주체성이 결여된 무기력한 세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이 두 세상이 〈제시문 1〉의 사물인터넷 세상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패놉티콘의 감시와 통제처럼 사물 인터넷을 통해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안개 나라 사람들의 무기력함은 사물인터넷 세상에서 인간이 주체성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비판해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답안 서술의 정확성과 논리적 구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채점기준 : A0 또는 B0를 기준으로 하며, +, −를 가감함.

등급		기준
A	A+	〈제시문 2〉와 〈제시문 3〉의 문제의식과 두 세계의 의미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제시문 1〉의 세계를 감시와 통제 그리고 주체성의 상실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비판한 경우
	A0	
	A-	
B	B+	〈제시문 2〉와 〈제시문 3〉의 문제의식을 제대로 파악했지만 그 중 한 가지 문제의식만 가지고 〈제시문 1〉을 비판한 경우, 또는 두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시문 1〉을 비판했으나 논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B0	
	B-	
C		〈제시문 2〉와 〈제시문 3〉의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제시문 1〉에 대해 부적절하게 비판한 경우
D		〈제시문 2〉와 〈제시문 3〉의 문제의식을 잘못 파악하여 〈제시문 1〉에 대해 부적절하게 비판한 경우
F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기술한 경우
0점		부정행위자 및 백지답안

Part II

〈제시문 4〉 출처 : 박지원, 「일야구도하기(一夜九渡河記)」, 고등학교 『고전』

〈제시문 5〉 출처 : 『EBS 인터넷 수능 국어 영역 화법과 작문 & 독서와 문법 (A형)』 (2014년), 『EBS 인터넷 수능 국어 영역 화법과 작문 & 독서와 문법 (B형)』 (2014년)

〈자료〉 출처 : 『EBS 인터넷 수능 국어 영역 화법과 작문 & 독서와 문법 (B형)』 (2014년)

〈제시문 4〉, 〈제시문 5〉, 〈자료〉의 요지

〈제시문 4〉 동일한 지각 경험이 배경에 따라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한다. 즉 작중 화자는 낮에는 거친 파도 때문에 강물소리가 안 들리고 밤에는 거친 파도가 보이지 않아 강물소리가 요란하게 들려 걱정한다. 그는 이와 같은 상대적 지각 경험을 통해 결국 생활에서의 평정심은 마음먹기에 달렸음을 깨달으며 감각에 의존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마음 비우기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제시문 5〉 (가) 따뜻한 물 또는 차가운 물에 담근 경험적 배경에 따라 미지근한 물에 손을 넣었을 때 온도를 다르게 느낀다고 한다. 따라서 사물에 대한 지각은 절대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카네만과 트버스키의 가치 함수 그래프를 통해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이득이나 손실의 객관적인 기댓값보다 만족감이나 상실감과 같은 주관적인 가치의 크기에 따라 결정한다는 기대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자료〉 (가)는 이익이 나는 두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한 예이다. 기댓값이라는 객관적 조건에는 차이가 없지만 손익과 가치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치 함수 그래프에 이를 적용할 경우 주관적 가치의 크기에 따라 무조건 10,000원을 받는 쪽을 선택하게 된다.

(나)는 손해가 나는 두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한 예이다. 기댓값이라는 객관적 조건에는 차이가 없지만 기대이론의 가치 함수 그래프에 이를 적용할 경우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선택하게 된다.

문제 3 〈제시문 4〉와 〈제시문 5-가〉를 비교·분석하시오. (400자 내외, 180점)

평가지침

이 문제는 두 제시문을 이해하고 각각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를 비교·분석하여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인간의 지각은 감각적 경험의 배경과 깊은 연관 관계를 가진다는 공통점을 서술해야 한다. 또한 두 제시문의 차이점으로서 〈제시문 5-가〉는 지각 경험이 배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만 제시하는 데에 반해 〈제시문 4〉는 배경에 의해 다르게 지각되는 현상에 대한 대응 방법까지도 제시하고 있음을 서술해야 한다.

☞ 채점기준 : A0 또는 B0를 기준으로 하며, +, −를 가감함.

등급		기준
A	A+	〈제시문 4〉와 〈제시문 5-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함께 서술해야 함 공통점 공통점으로서 ①이 반드시 서술되어야 하고, ②, ③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야 함 ① 지각 경험이 배경에 따라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 ②〈제시문 4〉에서는 낮과 밤이라는 배경에 따라 같은 강물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들리지 않기도 함 ③〈제시문 5-가〉에서도 따뜻한 물 또는 차가운 물에 담근 경험적 배경에 따라 미지근한 물에 손을 넣었을 때 온도를 다르게 느낌 차이점 ①〈제시문 5-가〉는 지각 경험이 배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만 제시함 ②반면, 〈제시문 4〉는 배경에 의해 다르게 지각되는 현상에 대한 대응 방법을 제시함
	A0	
	A-	
B	B+	위 내용의 공통점과 차이점 가운데 한두 개를 누락하고 비교·분석한 경우 (세부 항목별 대비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차등점수를 부여함)
	B0	
	B-	
C		비교·분석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항목 간에 논리적 연관성이 약한 경우
D		비교·분석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항목 간 연관성이 없는 경우
F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기술한 경우
0점		부정행위자 및 백지답안

문제 4

〈제시문 5〉의 카네만과 트버스키가 제시한 가치 함수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고, A와 B가 가치 함수에 근거하여 각각 어떤 선택을 할지 추론하고 그 이유를 제시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평가지침

이 문제는 선택의 상황에서 이익과 손실에 따른 객관적인 기댓값보다 주관적인 가치의 크기에 의존한다는 카네만과 트버스키의 기대이론을 구체적인 실례에 적용해 봄으로써 그래프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과 이를 실제 사례에 적용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답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카네만과 트버스키가 제시한 가치 함수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해야 한다. 가치 함수 그래프에서 손실에 따른 가치 하락 폭이 이익에 따른 가치 상승 폭보다 더 크다는 사실과 이익이나 손실의 크기가 커질수록 가치 함수의 기울기가 완만해져서 가치의 변화 폭이 줄어든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둘째, A가 무조건 10,000원을 받는 경우를 선택한다는 사실을 추론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를 밝혀야 한다. 무조건 10,000원을 받는 경우 가치는 3이지만 50%의 확률로 0원을 받거나 20,000원을 받는 경우 각각의 가치가 0과 4로 평균 가치는 2가 된다. 따라서 A는 가치가 더 큰 전자를 선택한다는 것을 기대이론을 통해 추론해야 한다.

셋째, B가 위반 사실을 자진해서 알리기보다 모른 척하는 경우를 선택한다는 사실을 추론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를 밝혀야 한다. 자진해서 10,000원의 벌금을 낼 때 자신이 느끼는 가치가 -6이지만 적발되거나 적발되지 않는 경우 각각의 가치는 -8과 0으로 평균 가치는 -4가 된다. 따라서 B는 가치의 상실이 더 적은 후자를 선택한다는 것을 기대이론을 통해 추론해야 한다.

☞ 채점기준 : A0 또는 B0를 기준으로 하며, +, −를 가감함.

등급		기준
A	A+ A0 A-	아래 사항들이 모두 기술되어야 함 1) 가치 함수 그래프의 의미 이해 - 이익과 손실 한 단위당 가치의 변화량을 기준으로 삼을 때 - 동일한 크기의 손실과 이익이 발생할 경우: 손실에 따른 가치의 하락 폭이 이익을 통해 얻은 가치의 상승 폭보다 더 큼 - 이익이나 손실의 크기가 커지는 경우: 가치 함수의 기울기가 완만해져서 가치의 변화 폭이 줄어듦 2) A는 첫 번째(무조건 10,000원을 받는 경우)를 선택한다는 것을 추론 - 첫 번째(무조건 10,000원을 받는 경우): 가치는 3 - 두 번째(50%의 확률로 0원을 받거나 20,000원을 받는 경우): 가치는 각각 0과 4로 평균 가치는 2 - 따라서 이익이 날 경우 가치가 상대적으로 가치 1이 더 많은 첫 번째(무조건 10,000원을 받는 경우)를 선택함 3) B는 두 번째(모른 척하고 있다가 적발되어 20,000원의 벌금을 내거나, 적발되지 않아 벌금을 안 내는 경우)를 선택한다는 것을 추론 - 첫 번째(자진해서 알리고 10,000원의 벌금을 낼 경우): 가치는 -6 - 두 번째(모른 척하고 있다가 50% 확률로 적발되거나 적발되지 않을 경우): 가치는 각각 -8과 0으로 평균 가치는 -4 - 따라서 가치의 상실이 2 더 적은 두 번째를 선택함
B	B+ B0 B-	위 1), 2), 3) 중 내용이 미흡한 것이 한 개 있는 경우
C		위 1), 2), 3) 중 내용이 미흡한 것이 두 개 있는 경우
D		위 1), 2), 3) 중 내용 대부분이 미흡한 경우
F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기술한 경우
0점		부정행위자 및 백지답안

07 2017학년도 모의논술 예시답안

2017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대비 모의시험

문제 1

(200자 내외)

〈제시문 1〉은 사물인터넷 세상이 인간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해 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한다. 〈제시문 2〉는 패놉티콘을 예로 들어 근대 규율 권력의 특징을 권력자가 만인을 미세한 영역까지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선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3〉은 안개에 싸여 통제되고 마비된 상황에 순응하기보다는 새롭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문제 2

(500자 내외)

〈제시문 1〉의 사물인터넷 세상에 대한 긍정적 전망은 〈제시문 2〉에서 말한 패놉티콘으로 대변되는 감시와 통제라는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 푸코는 타인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타인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관찰하는 것이 권력의 본질이라고 보았다. 사물인터넷 사회도 기술이 광범위하고 일상적으로, 그러면서도 보이지 않게 인간의 행동과 움직임을 추적, 기록, 감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패놉티콘을 떠올리게 한다. 사물인터넷 사회에서도 수집된 거대한 정보를 가진 자가 권력을 소유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사물인터넷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제시문 3〉의 안개의 나라에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음에 무기력함을 느끼나 이에 점차 익숙해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사물인터넷 세상의 편리함에 익숙해져서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인간의 주체성을 상실할 수 있다. 따라서 안개의 나라 사람들이 안개로 인해 보지 못할 때 '들어야'하는 것처럼 사물인터넷 세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인간의 주체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문제 3

(400자 내외)

〈제시문 4〉와 〈제시문 5-가〉는 공통적으로 지각 경험이 배경에 따라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제시문 4〉에서는 낮과 밤이라는 배경에 따라 똑같은 강물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들리지 않기도 한다. 〈제시문 5-가〉에서도 따뜻한 물 또는 차가운 물에 담근 경험적 배경에 따라 미지근한 물에 손을 넣었을 때 온도를 다르게 느낀다. 따라서 손의 접촉이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행위 등의 신체적 활동을 통해 얻은 사물에 대한 지각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배경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두 제시문의 차이점으로서 〈제시문 5-가〉는 지각 경험이 배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만 제시하는데 반해 〈제시문 4〉는 배경에 의해 다르게 지각되는 현상에 대한 대응 방법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문제 4

(500자 내외)

가치함수 그래프에서 이익과 손실 한 단위당 가치의 변화량을 비교해 보면, 동일한 크기의 손실과 이익이라도 손실에 따른 가치의 하락 폭이 이익을 통해 얻은 가치의 상승 폭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익이나 손실의 크기가 커질수록 가치함수의 기울기가 완만해져서 가치의 변화 폭이 줄어든다는 점도 알 수 있다.

(가)에서 A는 무조건 10,000원을 받는 경우를 선택할 것이다. 50%의 확률로 0원을 받거나 20,000원을 받는 경우 각각의 가치가 0과 4로서 평균 가치는 2이지만, 무조건 10,000원을 받는 경우 가치는 3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더 큰 가치가 발생하는 후자를 선택한다.

(나)에서 B는 50%의 확률로 벌금을 피할 수 있는 선택지를 택할 것이다. 가치함수에 따르면 10,000원의 벌금을 낼 때 자신이 느끼는 가치가 -6이다. 그러나 적발되거나 적발되지 않는 경우 각각의 가치는 -8과 0으로 평균 가치는 -4이다. 따라서 B는 가치를 덜 잃기 위해 자진신고하지 않을 것이다.